

##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 탐색\*

채은희<sup>†</sup>·김영순<sup>‡</sup>

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탐색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를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여성 내부에서조차 취약계층에 속함을 이해하고 중년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들의 노후준비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5명을 선정하고 심층면담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해 노후준비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의 의미로 ‘내 몸이 곧 재산’, ‘아프면 요양원 가야죠.’가 나타났다. 돈의 의미로는 ‘절약만이 살 길’, ‘부모처럼 되고 싶은 노후’가 도출되어 나타났으며, 여가의 의미로는 ‘여가는 아직 사치예요.’와 ‘노후에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 의미 확인은 물론, 이들의 노후준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제언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노후준비, 중년기,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내러티브 탐구

### I. 서론

한국 사회는 밀레니엄 시대에 외국인 100만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 4월 현재 체류외국인의 수가 217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 한·중 수교 이후

\* 이 논문은 채은희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sup>†</sup> 주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초빙연구위원

<sup>‡</sup>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한국인 남성과 중국동포 출신 여성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국적의 다양성을 기하며 국제결혼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제결혼은 2005년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이주화를 통해 결혼 이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며 한국사회는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김영순, 2020). 2020년 4월 기준 결혼이주민의 수는 167,860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중 7.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통계청, 2020), 이는 전체 혼인 중 8.8%가 국제결혼임이 확인된 결과이다. 1990년대 당시 20~30대이던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년기는 40세에서 60세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감퇴를 경험하며 위기로 경험될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apalia & Olds, 1998).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중반에서 삶에 대해 다시 계획하는 일은 중년기 발달단계에서 주요한 과업이 되고 있다. 특히, 곧 닥쳐올 노년기 삶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중년기 시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년기의 크고 작은 문제와 직면할 수 있다(박현식 외, 2010).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14%를 초과하여 고령 사회에 진입되었다. 앞으로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았다(통계청, 2020).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5)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0.9%가 자살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자살관념을 갖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과 단절(11.5%), 주요타자의 사망 영향(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관념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미령, 2008: 35).

최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채은희 외, 2019), 중년기의 한국인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함을 확인하고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성지혜(2015)는 베트

남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중년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주민의 복지 연구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 의미 확인을 통해 노후준비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가 활용되었다.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 후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노후준비의 의미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차원의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과 노후준비

### 1.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

결혼이주민의 성별 및 출신국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82.6%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그 중 중국 출신자는 36.3%에 해당했다. 중국 출신자 중에서도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중국동포 출신은 37.6%에 해당되었다(법무부, 2020). 중국동포는 주로 중국의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자들로 연변조선족자치주 거주자들 중 35.8%가 조선족에 해당된다(최미화, 2018).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이주해 살아온 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유지·발전해 오며 ‘조선족(朝鮮族)’ 특유의 문화를 형성해 살아 온 이주배경을 가진 한국인이다(김영순 외, 2020).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왕래가 없다가 1990년대 초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이주가 활발해졌다.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은 기존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황해영, 2018). 반면, 이들의 이주배경이 가져다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적응의 어려움, 가족갈등 등은 가족해체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통계청, 2020).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발휘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 극복해 나아가고 있었으며(김영순 외, 2019), 다른 이주여성들보다 귀화율이 높고 한국에서의 적응도 비교적 빠르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만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영 외, 2018). 즉, 민족의 동질성과 국적의 이질성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 비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

민족의 동질성과 국적의 이질성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다름대로 잘 적응해 살아 온 이들이었다면, 앞으로 이들의 노후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08년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생애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보건복지가족부, 2008)'에서도 결혼준비를 시작으로 자녀교육기까지 생애주기가 형성되어 나타나지만 아직 중년기와 노년기 생애주기가 포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 2. 이주여성과 노후준비

현대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경험하며 그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노후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창제, 2008).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성공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 상실과 소득 하락, 은퇴 후에 직면하게 될 고독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석상훈 외, 2011). 즉, 노년기의 건강 상실, 빈곤, 소외와 외로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차원의 고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는 노후준비가 노년기에서 직면될 경우, 바로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중년기부터의 노후준비를 가장 이상적인 계획으로 꼽고 있다(배문조, 2011). 예를 들어 노년기에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이미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빈곤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충분한 건강관리와 대인관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 상실, 소외와 외로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9.5%로 정주민에 비해 3.9% 높으며 이주민 중에서도 귀화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률 역시 정주민보다 이주민이 3.3%로 약간 높았으나 이주여성의 고용률은 62.5%인 반면, 이주남성의 고용률은 85.3%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즉,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이주민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의 종사 직종을 살펴보면, 정주민보다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14.9%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이주민 남성과 정주민 남성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 내부에서는 이주여성이 8.4%에 반해 정주민 여성은 23.2%로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즉, 이주여성은 여성 내부에서 조차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구의 월 가구 소득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48.5%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주민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47.6%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참고로 정주민 가구 연평균 소득이 5,828만 원임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20) 다문화가구는 일반 국민의 가구보다, 이주민은 정주민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건과 함께 건강이나 복지 측면에서도 정주민보다 이주민의 수준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특히 이주민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이들의 건강·경제·복지 상태는 정주민보다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노인의 빈곤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집단 빈곤의 예방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포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 정주민 중년층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했다(김양이 외 2008). 또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는 경제적 노후준비로 나타났으며(인은영 외, 2015), 노후준비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민들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음으로 나타났다(박창제, 2017).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고 그 방법을 잘 몰라서'로 나타났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이주민의 노후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44.6%가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정주민들은 69.7% 정도가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다고 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즉, 이주민들은 정주민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좋지 않은 것에 반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준비도는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의 이주배경이 미래 불안과 연결된 결과로 짐작된다. 실제로 한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현식 외, 2012; 이미영, 2017)에서도 이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보다 다른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주배경 프레임은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경제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대비한 후 다른 신체적, 사회·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20~30대에 해당하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는 노후가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고 국가나 자녀에 기대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 중년기를 맞이하지 않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은 노후생활기대는 매우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대비는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및 개요

#### 1.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르게 건강 상실의 경험이 있다. 연구자는 처음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관심을 가졌었지만, 건강 상실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가족과 주변의 주요 타자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중년기 위치에 놓인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직 특별한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노후준비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5명이 선정되었다. 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참여자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남편)	입국년도 (귀화년도)	결혼년도 (차수)	자녀 (나이)	학력 (남편)	직업 (남편)
A	41 (51)	1999 (2004)	2001 (19)	1녀/1남 (19/18)	대졸 (대졸)	원료개발연구직 (대기업기술자)
B	42 (55)	2007 (2017)	2004 (16)	1남/1녀 (16/8)	고졸 (고졸)	단순노무 계약직 (생산직근로자)
C	45 (50)	1999 (2004)	1999 (21)	1녀/1남 (21/19)	고졸 (고졸)	단순노무 계약직 (배송서비스)
D	51 (58)	1998 (2004)	2000 (20)	1남 (20)	박사수로 (대졸)	다문화 강사 (사무직)
E	44 (43)	2012 (2014)	2008 (12)	1녀/1남 (11/9)	고졸 (고졸)	중국어 강사 (시공기술자)

연구참여자 A는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딸만 둘의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사로 정년퇴직하였고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다. 대기업 연수에서 만난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1년 동안 월 200만 원을 저금하고 만기통장을 보여주며 청혼했다고 한다. 친정과 시댁의 축복 속에서 식을 올린 부부는 이후 남매를 얻었고 그녀는 남편 급여의 70% 이상을 저축할 정도로 알뜰했다. 몇 해 전, 화장품 원료개발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 그녀는 취업 전에 비해 늘어난 가구 월 소득을 통해 큰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착한 딸로 자란다. 중국에서 사업하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자녀양육문제로 자신과 아들만 한국으로 먼저 이주해 들어온다. 몇 해 전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은 남편 역시 귀국해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형편은 예전만 못하다. 그러나 그녀 개인적으로는 비록 계약직이지만 알바가 아닌 4대 보험 적용이 되는 일을 얻게 되어 만족감이 매우 높다.

연구참여자 C는 중국 흑룡강성 출신으로 딸 둘의 맏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고 남편 말만 믿고 결혼한 그녀는 한동안 게임중독에 빠져 가장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일찍부터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친정어머니는 맏딸을 위해 시댁에서 분가시키고 생활비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다. 중년기에 접어든 이들 부부는 자녀지원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친정부모와 같은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처음 신학을 위해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이주해 들어왔지만, 신학에 대한 실망 후 석사 졸업과 동시에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중국에 있는 그녀의 동생들은 대학교수에 대기업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자신보다 동생들이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실감이 크다. 하나뿐인 아들의 차별경험을 통해 이주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녀는 수많은 좌절감을 경험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중국 흑룡강성 출신으로 독실한 신앙인이다. 중국에서 경험한 불안장애틀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그때 만난 선교사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그녀의 남편 역시 중국동포이며 둘째 자녀 출산과 맞물려 처음 한국에서의 적응을 가장 힘든 시기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어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그녀는 어릴 적 친정어머니와의 사별로 인해 포기했던 학업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로 인해 못다 이룬 학업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이

비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녀지만 신앙심으로 충만한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5명과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노후준비 특성을 표로 작성해 보았다. 이러한 구성은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노후준비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노후준비 특성

구분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E
삶의 만족도	4.8점	3점	3.5점	3점	4.5점
중요한 노후준비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사회 정서적	경제적
기대수명	100세	80세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	85세
운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건강생활	중	중	중	중	중
가구 월 소득	1,200만원	350만원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주거형태	자가 (아파트)	자가 (빌라)	자가 (빌라)	자가 (빌라)	전세 (아파트)
자동차	1대	없음	2대	1대	없음
그 외 자산 (부동산)	3건	없음	없음	2건	없음
채무	없음	없음	담보대출 자동차할부	없음	약간
노후 기대자금	월400만원	월300만원	월150만원	월200만원	월200만원
종교	없음	없음	없음	냉담자	기독교
여가	친정방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면담이 활용되었다. 심층면담은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 자료로 수집하고 경험과 관련해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의 대화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Manen, 1994).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심층면담은 단답형이 아닌 내러티브 형식의 대화로 발전시키며 상호 관계성과 협력관계를 통해 질적 확대를 꾀한다. 이에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친밀한 관



계를 강조하는 연구방법으로써 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일종의 대화(dialogue)가 연구의 기반이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또한, 질적연구는 결과의 일반화를 지향하기보다 각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결과로 도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사례는 많은 사례가 요구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고려하여 3명에서 10명 내외로 권장하고 있다(Maxwell, 2004).

연구참여자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5명이 선정되었다.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중국동포 출신 연구교수의 소개와 함께 이주언어강사 보수교육에 참석 중인 자를 섭외하게 되었다. 소개받은 자와 섭외된 곳의 지역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인천 시민이 되었으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이는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높은 귀화율과 함께 지역 중 인천의 결혼이주민 귀화율이 높은 결과(최정호, 2019)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연구참여자들과는 2019년 6월에서 8월 사이 3개월 동안 각각 2회 이상의 개인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간은 90분 내외로 하였다. 또한 면담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질적연구의 기본이 되는 면담방식은 잘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가 활용되었다(Seidman, 2006). 반구조화질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질문을 시작으로 노후기대와 인식, 과거의 영향과 함께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구를 확인하였으며 반구조화 질문지 특성상 추가 질문이 떠오르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내러티브 탐구가 활용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자료를 세분화하기보다 이야기 자체에서 확인된 경험 내용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다(Ezzy, 2002).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경험된 이야기 안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도출하고 도출된 의미를 다시 연구 퍼즐을 활용해 맞추어 보는 것은 내러티브 탐구의 핵심 분석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염지숙, 2003). 이러한 작업은 방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이야기된 내용 안에서 도출되지 않은 숨겨진 의미를 찾는 데 분석의 용이성을 갖게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노후준비 의미 내용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유형을 바탕으로 건강의 의미, 돈의 의미, 여가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노후준비 유형은 각각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채은희, 2019), 노후준비의 3가지 의미 확인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 실태 및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3.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성

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Denzin, 1970). 삼각검증법은 원래 기하학 또는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방향설정에 쓰이는 방법에서 채택된 원리로 질적연구에서도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흔하게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즉, 다수의 자료와 방법, 그리고 다수의 연구자와 이론 등을 총 동원하고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자료, 연구자(동료 연구자 포함), 연구참여자, 이론 등을 다원화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삼각검증법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 심의를 거친 후 연구승인(승인번호 190408-4A)을 얻어 진행되었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안전문제 등을 심의, 감독, 지도, 교육하여 인간연구대상자의 존엄성과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IRB 승인 요건을 준수하였다.

## IV.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의미

### 1. 건강의 의미

#### 1) 내 몸이 곧 재산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 삶의 만족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미래 자신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건강한 몸과 정신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든든한 자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의 의미를 스스로 어떻게 부여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저희 회사가 정년이 없어요. 사장님이 본인이 정년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제까지 건강이 되고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다녀라 이러시거든요. 저는 그냥 다닐 때

까지 회사를 쫓 다닐 계획이고, 신랑이 엔지니어 기술자예요. 좀 큰 회사인데 인원감축이 들어갔는데 신랑은 현장 직원이 아니라 기술부라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A-1)

가구 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연구참여자 A는 결혼 초 남편이 혼자 벌 때에도 급여의 70%를 저축할 정도로 알뜰하게 절약하여 가계 자산을 늘려 나간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상가임대수입보다 시세차액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관련된 부동산을 물색하는 일은 이들 부부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 되었다. 그로 인해, 그녀의 가정은 휴양지 땅과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2채의 중도금 상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년을 없애겠다고 한 고용주의 발언은 연구참여자 A에게 둘도 없는 미래 희망이 되었다. 자신의 급여를 더욱 신뢰하고 있는 그녀의 기대 안에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지금처럼만 꾸준히 경제활동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건강 상실 경험을 간접 경험하게 된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건강을 곧 재산으로 인식하고 미래에 닥칠지 모를 건강 상실의 경험은 피하고 싶은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처럼만 꾸준히 정년을 넘은 나이까지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도 정작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A의 경험은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집중하다 건강 상실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신체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연구자의 경험을 떠오르게 했다.

“많게는 아니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소일거리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 의존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하하하. 아마 제가 아직 건강해서 그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1)

결혼 전의 자신을 ‘온실 속 화초’, 결혼 후의 자신을 ‘잡초’로 표현할 만큼 결혼 후 많은 고난을 겪었던 연구참여자 C는 무능력한 남편 덕분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야 했다. 그러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될 경제활동은 그녀에게 둘도 없는 미래 희망이 되었다. 반면, 건강 상실의 의미는 피하고 싶은 미래 경험이었다. 특히, 누군가에게 의존하

는 것이 싫다고 했던 그녀는 노후에도 경제활동 열심히 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즉, 그녀에게 건강의 의미는 장담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확실한 자산이 되는 반면, 건강 상실의 의미는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낼 만큼의 끔찍한 경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야 마음잡고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을 생각하면 핑크빛 미래를 꿈꿔볼 만 하지만,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일에 벌써부터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남편을 감지한 그녀에게 건강의 의미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다.

“요양병원 가면 자식들이 버렸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안에 있으니, 안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기는 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거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똑같은 환경에서 하루하루 종일 전쟁을 치러야하고, 조금 있으면 밥 주고, 또 조금 있으면 자야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아파서 집에서 살면서 밖에도 돌아다니고 다 느끼면서 혼자...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E-2)

연구참여자 E는 자신의 미래 진로와 혼자된 친정아버지의 돌봄에 대비하여 몇 해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실습을 통해 노년기 건강 상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요양원 생활이 물리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신체적으로는 개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하는 생활이 아무런 삶의 의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 역시 건강 상실의 경험은 피하고 싶은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E는 노년에 비록 친정아버지처럼 폐지를 주워 생활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가끔씩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신앙으로 충만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는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미래 자신감과 연결되었다.

## 2) 아프면 요양원 가야죠.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의 의미는 미래의 든든한 자산과 같았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미래

자신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에게 건강 상실의 의미는 미래 좌절감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이지만, 만약 건강을 상실하게 된다면 치료 열심히 받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타인 돌봄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나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지금까지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자녀 기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요양원 가야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엄마가 9남매여서 다들 잘 사시거든요. 저는 사실 어릴 때에는 아니 왜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지? 그때는 아니 다들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충분히 모실 수 있는데, 왜 병원에 계시지? 했어요. 이모가 병원 다니시고 병원도 있고 하시고, 사촌언니들도 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모시더라고요. 그제, 돈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건강... 정신건강? 그런 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의지할 생각은 없고 요양원 가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 아프시다면 저는 자신 없거든요.” (연구참여자 A-2)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돌이나 있는 연구참여자 A는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반면, 자녀가 요구하는 다른 지원(취미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자녀지원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대학등록금도 스스로 벌여 해결해야 한다. 즉, 연구참여자 A 부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녀기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A는 결혼 초, 시어머니 간병 경험을 통해 부부갈등이 심하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 외가식구들이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외할머니를 스스로 돌보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A는 지금의 절약생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요즘 언니들 말로는 자식은 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자식은 평생 내 자식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정말 떼어 내는 습관을 해야 된대요. 아이들이 여기 같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아이들 생활이 있으니까, 저는 의지 안 해요! 요즘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지

만 그렇다고 자기가 힘든데 부모님까지 챙겨드릴 형편도 안 되잖아요. 진짜 내가 돈이 많이 있지 않은 이상 평범하게 살려면, 부모까지 챙기지 못해요. 나도 내 부모를 못 챙기는데, 내가 지금 자식들한테 ‘너희도 나 챙겨 달라...’ 이렇게 말은 못하죠.” (연구참여자 B-2)

연구참여자 B는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했다. 남편과의 소통보다 주변 친구들과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는 직장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자신도 형편이 되지 않아 만딸이면서도 친정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남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녀는 빚지지 않기 위해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호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이 되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할 마음이 없었던 그녀는 현금 2억이 모아지면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자녀 지원 역시 간과하지 않았다.

“시아버님이 살짝 치매신데, 80세가 넘으셨어요.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 요양원 가기 싫어하세요. 어머님이 아버지 구박하시면서도 티격태격 오래 사시더라고요. 제가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저는 사회활동도 하고 싶는데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오래전에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들이라 두 분이 같이 살다가 한 분이 힘들어지면 알아서 요양원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식한테 폐 끼치지 싫어서 요양원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라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D-1)

연구참여자 D의 남편은 장남도 아니면서 경매로 넘어갈 뻔한 시부모의 집을 매입해 다시 시부모에게 제공하는 효자 남편이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시부모에게 할 만큼 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부양부담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스스로 건강을 돌보지 못해 수 십 년을 친정아버지에게 의지해 살아 온 친정어머니를 통해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인이 되는 것이 노후 희망이 되었다. 즉,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는 것은 물론, 몸이 불편한 아내를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친정아버지를 존경하는 반면, 아프면서도 오래 살기를 바라는 친정어머니를 통해서도 이러한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

자 D 역시 하나 뿐인 아들만 독립하면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고민 없이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 2. 돈의 의미

### 1) 절약만이 살 길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 생활까지 염두에 두어야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한정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근검절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 역시 ‘안 쓰는 것이 곧 버는 것’으로 여기고 나름대로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참여자들의 절약생활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재테크로 분양을 받았어요. 2개를 따로 분양 받은 게 있어서 그게 지금 중도금 낼 거를 모아놓고 있는 거죠... 정수기는 없고 물을 끓여 먹어요. 원래 생수를 먹었는데, 왜 생수를 안 마시냐면, 택배 아저씨가 너무 힘들게 배달하잖아요. 물이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시킬 때 금액 맞추려다보니까 많이 시켜야하고 그러면 그거 들고 오시게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배달 안 시키고 물을 끓여 먹는 거죠.” (연구참여자 A-1)

연구자 역시 연구참여자 A처럼 식수를 끓여 마셨던 경험이 있다. 특히 가족이 여럿이거나 더운 날씨에 식수를 끓여 마시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역시 생수를 배달해 마셨던 경험이 있다. 그것조차 매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염려되어 결국 정수기 렌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A는 생수 배달기사의 노고를 생각해 물을 끓여 마시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여느 가정에 비해 가구 월 소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수를 끓여 마시는 수고를 단념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분양 받은 아파트 2채의 중도금 상환과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미래를 생각하면, 정수기 렌탈은 아직

사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저희는 외식 같은 것도 줄이고 외식은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직 차가 없어요. 하하하. 차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집보다 좀 많이 모을 수 있죠. (다니는 건 어떻게 다니세요?) 대중교통이요. 제가 인천에 오래 살아서 노선도 인천 쪽만 알고 가끔 경기도 안산 쪽 가고, 친구들이 거의 다 인천에 있으니까 ○○○ 쪽이나 주안 쪽에서 주로 만나요.” (연구참여자 B-2)

중국에서 사업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연구참여자 B는 신희은 중국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말만 하고 한국말은 하지 않는 3살 아들이 걱정되던 남편 때문에 그녀와 아들은 한국으로 먼저 이주해 들어와야 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던 남편 역시 몇 해 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생활은 예전만 못하다. 그로인해 연구참여자 B는 처음으로 4대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생활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남에게 빚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현금을 선호하는 연구참여자 B 부부는 현금 2억 모으기 꿈을 이루기 위해 외식을 자제하고 웬만한 가정집에 있을법한 자동차를 두지 않으므로 여느 가정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지금의 불편함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자신이 있다.

“저희 남편이 하루에 얼마씩 쓰라고 넣어 줬어요.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생활비 초과하지 말라고, 저는 한꺼번에 많이 쓰거든요. 돈 관리는 제가 하는데, 남편이 생활비 아끼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줘서 봉투에다 홀수 날은 만원, 짝수 날은 2만원 넣어줘요.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도 애들 용돈이랑 제 용돈은 따로 주더라고요. 하하하” (연구참여자 E-1)

연구참여자들 중 가구 월 소득이 가장 낮았던 연구참여자 E는 월 소득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한다고 했다. 심층면담 중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하게 웃던 그녀는 남편의 제안을 통해 생활비를 통제받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따로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용돈이 개인 소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목사나 사모를 찾아가 기도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낸다고 하였는데, 그런 목



사나 사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회 헌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를 잘 아는 남편이 계획 없이 지출되는 생활비를 통제하기 위해 짝수 날은 만원, 홀수 날은 2만원, 그리고 아내의 용돈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E는 가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부모처럼 되고 싶은 노후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친정부모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친정부모들은 비교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친정부모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부모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왕래가 뜸해 시부모의 노후준비 정도가 파악되지 않거나 형제들이 조금씩 모아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 놓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의 친정부모들은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반면, 시부모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친정부모와 같은 노후를 희망하게 되었다.

“저희 친정엄마가 되게 부지런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늘 봐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성격이 다 비슷해요... 땅은 나라에서 준 땅이니깐 당연히 있는 거고, 젊었을 때 사 놓 집 2채 정도 있는 거 세 받아먹고,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처럼 열심히 못 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 엄마가 내 나이 때는 경제적 기반 다 잡고 계셨는데, 저는 아직 아니잖아요. 저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연구참여자 C-2)

어렵던 시절, 고생하는 큰 딸이 안쓰럽던 연구참여자 C의 친정부모는 딸을 시댁으로부터 분가시키기 위해 집을 얻어 주고 변변한 직장이 없던 사위를 대신해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다. 그런 친정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연구참여자 C는 친정부모와 같은 노년의 여유를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이제야 겨우 마음잡고 배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남편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녀에겐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아 보인다. 즉, 영업용 트럭과 개인용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 대출 상환, 그리고 벌써부터 일에 실증을 느끼고 있는 남편을 보자면 그러하다. 또한, 친정부모와 같은 여유를 통해 자신 역시 자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열망이

숨겨져 있음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제 아버지가 사실 남을 잘 도와요. 지금 이제 보니까,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잘 그 자리에 있고, 집이 부족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본인인 계속 모아 놓은 거로 다 자식들에게 빌려주면서 살고 계세요. 하하하. 자식들이 없는 게 아닌데, 뭔가 하려다가 부족하면 아버지에게 빌려요. 하지만 다 갚아야죠.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빠랑 언니는 이쪽에 집이 있고 중국에도 집을 하나씩 사 놨어요... 아버지가 얼마 정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자기 쓰실 거는 잘 준비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노후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연구참여자 E-1)

남에게 베푸는 삶을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여기고 있는 연구참여자 E는 능력만 된다면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 역시 남에게 베풀며 살았지만 다른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친정아버지를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어릴 적에는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끔 급전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주시는 아버지를 통해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삶의 경험을 자신의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욕심 없이 베풀며 사는 삶도 성공적일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다.

### 3. 여가의 의미

#### 1) 여가는 아직 사치예요.

한국 노인들의 여가 형태를 살펴보면, TV시청하기가 82.4%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를 결심하였으며, 이민자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던 중국동포 출신 연구참여자들에게 여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서 확인된 여가의 의미는 그들 삶의 질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여행은 애들 어렸을 적이나 많이 다니고 했지, 요즘은 애들이 크다보니까 같이 모이기

힘들어서... 큰애가 또 학원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주말엔 자기가 쉬어야한다고 하고 잘 안 따라 나서다보니까, 작은 애는 아직 어리니까 잠깐씩 다녀오고... 이제 애들 방학이니까 잠깐 강화 가까운데 1박2일 그냥 놀다가 오려고요. 애들 스트레스라도 풀어주려고... 근데 너무 사치는 안 부려요.” (연구참여자 B-2)

연구참여자 B는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자주 여행을 즐겼다고 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와 함께한 가족여행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가족여행의 즐거움을 경험케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달라졌다. 중국에서의 오랜 사업을 접고 귀국한 남편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의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가족여행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사치를 부리지 않는 선에서 가족여행을 거르지 않으려는 연구참여자 B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과거만큼의 여가는 현재시점에서 사치로 경험되고 있었다.

“저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딱 한 번 북한 산 갔다 온 게 끝이에요. 저는 여름휴가도 안 갔어요. 그 돈이 아까워서... 여행 가려면 몇 십만 원 깨지잖아요. 저는 그 돈 깨지는 게 아까웠어요. 그 돈을 쓸 거면 차라리 가전제품을 바꾸자.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가를 즐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자이긴 해도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C-2)

연구참여자 C는 결혼 전만 해도 자신이 번 돈으로 친구들과 충분한 여가를 즐기며 살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여가가 사치가 되고 말았다. 결혼 후 북한산 한 번 다녀온 것이 유일하게 기억되는 여가 중 하나가 되었지만, 만약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돈으로 가전제품 하나 바꾸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생활 능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그녀라면 여가는 분명 사치에 불과할 수 있다. 장학금 받는 대학생 딸과 특성화고에 들어간 아들 덕분에 더 이상의 자녀 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남편까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며 가구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연구참여자 C의 입장에서 여가는 당분간 사치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 2) 노후에는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자녀양육 등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가의 여유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여가는 아직 사치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부족한 여가를 통해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충분치 않은 여가를 노후에는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과거의 반추와 미래의 유추를 통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저는 노후에 폐지 줍는 할머니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교양 있는 할머니. 하하하.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진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뭐 아무 노동일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지면 그래도 그 분들보다는 내가 덜 힘들게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독서활동이라던가 뭐, 취미반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이가 되면 또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활동 많잖아요.” (연구참여자 B-1)

연구참여자 B는 여가의 여유를 통해 교양 있고 멋진 노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현재는 아직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노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상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인과의 소통을 좋아하는 그녀는 노년에도 “남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노인”을 통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노년의 여유를 생각하자면 현금 2억 모으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노력이 되고 말았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즐길 수 있으면 그게 뭐든... 아기가기하게 손으로 하는 거, 흠패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등록해서 배우고, 남들이 100만 원 벌 때, 나는 10만 원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용돈 정도라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C-1)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연구참여자 C는 남편 덕분에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도맡아 오며 스스로 삶의 진리를 터득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돈으로 사고를 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그녀 역시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북한산 다녀온 것이 여가의 전부라고 했지만, 노후에는 홈페이지와 같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가 안에서도 경제활동의 끈을 놓지 못했다. 다시 말해, 친정부모와 같은 경제적 여유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돈벌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수단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고 만 것이다.

“그 권사님이 평생을 유치원 원장님을 하셨어요. 근데 연로하셔서 지금 80세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도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강사를 나가시는데 명강사예요. 동화 구연... 그분은 노년에도 도전하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중학교 가서 학교폭력예방 교육하고, 그 분은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신 분이예요. 저의 롤모델이에요.....[중략].....동암역 근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시위 활동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으세요. 시아버지는 치매 끼가 있어서 집에만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의식이 젊으니까 오래된 옛날 컴퓨터 고치면서 돈도 벌고 계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D-1)

초등학교 갓 입학한 이들의 차별경험을 통해 이주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구참여자 D는 벌써 10년 넘게 사회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으로서 이주민 처우개선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그만큼 수많은 좌절감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뿐인 아들만 독립하면 미련 없이 친정 식구들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녀의 내면에는 한국 사회에서 민폐 끼치는 노인이 아닌, 존경받는 노인의 모습을 열망하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 D에게 여가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방법에 의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의 의미에서는 이들의 신체 건강은 곧 미래 자산과 연결되었다. 즉, 노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이 꾸준히 경제활동 할 수 있기를 희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포착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인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기존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고(황해영, 2018) 노후준비특성표(표-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연구참여자도 존재했다. 그러나 아직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특별하게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건강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했다. 이는 한국인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김양이 외, 2008). 이들 역시 자녀양육기에서의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기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노후에도 현재와 같이 경제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포착되지 않은 건강관리문제는 건강 상실로 인한 노후생활의 상실감을 유추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둘째, 돈의 의미에서 이들은 불안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검절약을 통해 안정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은 노후준비인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확보된 자원을 통해 자신도 친정부모와 같이 여유 있는 노후를 기대했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의 친정부모들은 시부모들에 비해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노후준비 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들이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로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인은영, 김찬우, 2015). 셋째, 여가의 의미에서 이들에게 여가의 여유는 아직 사치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정생활에 직장생활,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던 이들에게 여가의 여유를 즐길만한 시간과 비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에는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노후준비인식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자원을 더욱 통제해 나아가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20~30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는 자신들의 노후를 전적으로 국가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자녀기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들은 중년의 정주민들과 같이 자녀지원에 아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기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노후로 인한 자녀부담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녀지원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이들 역시 근검절약 외에 다른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내놓고자 한다. 첫째, 결혼준비기에서 자녀

교육기까지만 나타나있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보건복지가족부, 2008)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그 시기가 확장되어야 한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생활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에서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통해 결혼당사자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를 지양하고, 이주민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글로벌 미래인재육성이라는 정책추진전략을 배경으로 삼은 만큼 앞으로 이주여성들의 생애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확장함으로써 고령화와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소득보장과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미래가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애주기 확대를 통해 노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 상실 시 대처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체적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소외와 외로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힘써야 한다. 둘째, 이주여성 처우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후속연구의 양적·질적 확대이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노후준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스스로의 미래생활설계가 가능해지도록 자립지원과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생활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의 생애주기 확대를 통해 국가정책의 지원과 더불어 사회자원의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의 노후로 인한 자녀부담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잘 늙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김미령. (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양이·이채우. (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김영순·조영철·김정희·정지현·박봉수·오영훈·손영화·박종도·이미정·정경희·김기화·박미숙·오세경·임지혜·황해영. (2019).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성남: 북코리아.
- 김영순. (202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사회통합 총서 6)」. 성남: 북코리아.
- 김영순·황해영·장연연. (2021). 「중국동북지역 소수민족 문화이해」. 성남: 북코리아(근간).
- 박창제. (2017).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 비교. 「사회복지정책」, 44(3): 163-187.
- 박현식·이선형·최은희. (2010).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거주 지역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85-315.
- 박현식·최옥자. (2012). 독일교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67-487.
- 배문조. (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법무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경기도: 법무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세종특별자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특별자치: 보건사회연구원.
- 석상훈·권혁창·송현주·이은영·오지연·신혜리·김균희.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II: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전라북도: 국민연금연구원.
- 성지혜. (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83-115.
- 여성가족부. (2019). www.mogef.go.kr. 검색.
- 염지숙. (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



- 마. 「교육인류학연구」, 6: 119-140.
- 이미영. (2017). 중년층의 노후준비 감사성향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재외동포 비교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91-304.
- 인은영·김찬우. (2015). 중간소득 이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25-52.
- 채은희. (2019). 선행연구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본 노후준비의 의미. 「인문사회2」, 10(5): 355-367.
- 채은희·박미숙. (2019).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8(1): 203-225.
- 최미화. (2018). 재중동포 이중 언어 교육의 실제와 개선 방안: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1: 289-310.
- 최정호. (2019). 「인천지역 다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인천시 다문화정책, 전환과 준비」. 2019-2학기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특강자료.
- 통계청. (2020). www.kosis.kr. 자료 검색.
- 황해영. (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_Bass.
- Denzin, N. K. (1970).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Ezzy, D. (2002). Data analysis during data collection.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60-79.
- Maxwell, J. (2004). Causal explanation, qualitative research, and scientific inquiry in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33(2): 3-11.
- Papalia, D. E., & Olds, S. W. (1998). Human development(7th ed.). New York: McGraw-Hill.
- Seidman, L. J. (2006). Neuropsychology functioning in people with ADHD across the lifespa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4): 466-485.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동녘, 원저 1990년 출판.

## Abstract

### Exploring the Meaning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Middle-Aged Korean-Chinese Migrant Women

Eunhie Chae & Youngsoon Kim

The study began with an interest in the preparation of Korean-Chinese migrant women, who are now middle-aged. A prior study also found that qualitative research on them was insufficient and recognized as a necessity for research. In Korean society, it is time for migrant women to be interested in preparing for their retirement at a time when they are in middle age after confirming that they are also classified as vulnerable within women. Five middle-aged researchers aged 40 to 60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meaning of preparation for old age was derived using narra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sense of health, 'My body is a property', 'If you are sick, you should go to a nursing home.' appeared. In terms of money, 'saving is the only way to live' and 'old age that wants to be like parents' were derived. In terms of leisure, 'leisure is still a luxury' and 'I want to enjoy leisure time in old age.' Based on these results, we were able to confirm the meaning and level of preparation for the retirement of migrant women from ethnic Korean-Chinese and emphasized the need for policy proposals and follow-up research accordingly.

\* Key Words: Preparing for the Retirement, Middle-Age, Korean-Chinese Migrant Women, Narrative Inquiry

투고일: 2020.11.14 / 심사일: 2020.11.24 / 게재확정일: 2020.12.24